광주 고교생들 '미세먼지 측정 앱' 개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박승준·박견웅·이선우·이형석·이후윤 작품 '빈더스트'로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앱 개발대회 우수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개발한 '미세먼지 측정 앱'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앱 개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박승준·박견웅·이선우·이형석·이후윤군은 지난 5월부터 6달 동안 열린 고교생 앱 개발경진대회 '0과 함께 하는 스마틴 앱 챌린지 2019'에서 상을 받았다. 중기부와 SK플래닛, SK텔레콤이 공동 주최하는 대회로, 시상식은 8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진행됐다.

'스마틴'은 '스마트'(Smart)와 '틴에이지'(Teenage)의 합성어로, '창의적인 10대 청소년'을 의미한다.

박승준군 등은 '빈더스트'라는 출품작으로 미래산업IoT(사물인터넷)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빈더스트'는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한다. 각 기기가 측정한 미세먼지 정보를 다른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QR코드를 통해 앱과 연동,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측정된 데이터는 분석을 위해 저장해 두기도 하며, 미세먼지 측정기기에 태양광 충전 패널을 장착해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렸다.

한편 이번 대회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에는 미림여자정보과학고와 한세사이버보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등 3개 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는 유기동물의 사연을 보여주며 후원을 유도하는 앱 '도너츠'로 생활 정보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세사이버보안고는 풍선이 가시에 닿기 전에 선을 그려 터뜨리는 아케이드 게임 앱 'Slapit'으로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미래산업AI 부문에서는 분리수거 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SmartCycle'(한국디지털미디어고)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도 18개 팀이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6개팀), 우수상(6개팀), 장려상(6개팀)을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총 5100여만원의 상금과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 79개 학교에서 318개 팀이 참가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수능 수험생 버킷리스트 경품을 잡아라"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 상무지구 T World 매장서 개통 고객 아이폰11 등 증정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김현국)가 수능을 맞아 상무지구 T World 매장에서 '수험생 버킷리스트 경품행사'를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상무지구 T World 매장에서 개통한 고객에게 경품 응모권을 나눠주는 이벤트다. 행사는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고객도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최근 출시된 아이폰11부터 갤럭시워치 액티브, 에어프라이기 등 경품을 증정한다.

경품 추첨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상무지구 T World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SK텔레콤 부스트파크 상무지구에서는 5GX 체험관, 4K 360도 VR 영상을 즐길 수 있는 'Jump VR' 체험, 'AR 동물찾기 스탬프 미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각종 제휴사 할인, 무료 공연 초청, 전용 쇼핑몰 등 멤버십 혜택도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모바일 T World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국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11일 초고속 우주 인터넷망 '스타 링크' 구축을 위한 미니 위성 60기를 지구 궤도에 추가 배치했다. 미니 위성이 담긴 로켓 '팰컨9' 발사 장면. /연합뉴스

수만개 위성 연결 … 초고속 우주 인터넷망 '스타링크' 구축 사업 가속도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11일 우주 인터넷용 미니 위성 60기를 팰컨9 로켓에 실어 지구 궤도에 배치했다.

지난 5월 1차분 60기에 이어 2차분 위성 60기를 추가 배치함으로써 지구 궤도에 수만개 위성을 배치해 연결하는 초고속 우주 인터넷망인 '스타링크(starlink)'를 구축하는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스페이스X는 이날 오전 9시56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팰컨9 로켓을 발사한 지 한 시간여만에 무게 260㎏의 미니 위성이 성공적으로 배치된 장면을 공개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발사에서 4번째 사용해 3회 재활용의 벽을 넘어섰으며, 원뿔형 선단인 페어링(nose cone)도 처음으로 재활용했다. 또 팰컨 로켓이 실은 중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신기원을 이뤘다.

스페이스X는 내년부터 미국 북부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시작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앞으로 24차례에 걸친 추가 배치를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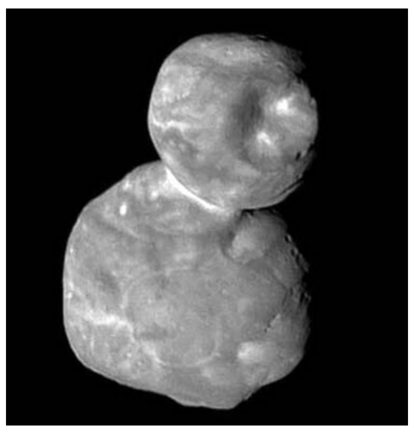
스타링크가 이처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천문학자들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스페이스X 측이 1차분 위성을 배치한 직후 지구 궤도에서 포착되는 위성들로 밤하늘에 빛 공해가 유발되자 천문학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스페이스X 측은 위성의 고도를 280㎞ 이상으로 올리고, 위성의 바닥 부분을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 빛 반사를 줄이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스타링크 이외에도 원웹(OneWeb)과 아마존, 텔리샛(telesat) 등 다른 업체들도 스페이스X와 비슷한 서비스를 추진 중이어서 지구 궤도는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눈사람 소행성' 이름 변경

나치논란 '울티마 툴레' 버리고 하늘이라는 뜻의 '아로코스'로



인류 우주선이 탐사한 천체 중 가장 멀리 있는 '눈사람 소행성'(사진)의 이름이 포카혼타스가 속한 인디언 부족의 언어에서 따온 '하늘'이라는 뜻의 '아로코스(Arrokoth)'로 바뀌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알고 있는 세계 너머'라는 의미의 라틴어인 '울티마 툴레(Ultima Thule)'가 나치와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아리안족의 신화 속 고대 국가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논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과학전문매체 등에 따르면 NASA 뉴허라이즌스호 운영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본부에서 약 65억㎞ 떨어진 태양계 끝에 있는 카이퍼 벨트의 천체 '2014 MU69'의 공식 명칭을 아로코스로 명명하는 행사를 열었다.

뉴허라이즌스호 운영팀은 아로코스라는 이름의 사용에 대해 포하탄족 원로와 대표의 동의를 얻었으며, 카이퍼 벨트 천체의 공식 명칭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국제천문연맹(IAU) 소행성센터에 신청해 승인도 받았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제20회 필 사이언스 강연회

16일 '우주 무한도전' 주제 이강환 박물관장 등 초청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홀에서 '제20회 필 사이언스 강연회'를 개최한다.

필 사이언스 강연은 과학을 느끼고(feel) 사랑하는(phill) 이들을 위한 무료 과학 강연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우주 무한도전'. 이강환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관장, 문경수 국내 1호 과학탐험가가 초청 강사로 참여한다.

이날 이강환 관장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까?'를, 문경수 탐험가는 '인류가 화성에 가려면?'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우주 무한도전!'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12월 1일까지 국립법인과학관 공동 특별전 '우주로의 도전'을 진행 중이다. 지구·달·화성 3개의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에서는 무중력 체험, AR(증강현실)로 즐기는 달 탐사선 조종, 코딩을 활용한 화성탐사로봇 체험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사전참가 접수는 국립광주과학관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전시실로 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애플, 2023년 증강현실 기능 '스마트 글라스' 출시

애플이 2023년 증강현실(AR) 기능을 가진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인포메이션과 경제매체 CNBC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1000석 규모의 스티브 잡스 극장이 꽉 찰 만큼 직원들을 모은 뒤 AR 기기의 개발·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2022년 카메라를 탑재해 실제 현실 위에 디지털 콘텐츠를 포개서 볼 수 있는 AR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헤드셋은 페이스북이 이미 출시한 가상현실 헤드셋인 '오큘러스 퀘스트'만큼 클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는 착용한 채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큰 크기다.

애플은 이듬해인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AR 글라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N421'이란 프로젝트명의 이 기기는 "온종일 쓰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제작될 예정이다.

CNBC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 스마트 글라스가 부상하고 일반 안경 크기의 작은 장비 안에 AR을 장착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에 대부분의 IT 공룡들이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스마트 글라스는 현재의 커다란 가상현실(VR) 기기와 달리 보통 안경처럼 쓸 수 있는 장치로, AR 기능을 탑재해 주변 환경을 눈으로 보면서 그 현실 위에 투사된 각종 디지털 콘텐츠·정보를 볼 수 있는 기기다. /연합뉴스